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및 조절효과*

최 미 은

거창교육지원청 Wee센터

남 숙 경[†]

국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 자기제시는 자기수용을 통해서만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수용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래관계 질, 자기수용

* 본 원고는 최미은(2019)의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숙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205호 / Tel: 02-910-6371, E-mail: sknam@kookmin.ac.kr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고의 성숙과 함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처하고자 노력하며 그 과정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또래관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또래집단을 통해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등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배민영, 2015; Berndt, 1999) 개인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안은미, 2018).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 기술을 학습 하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홍주영, 도현심 2002). 한편,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우울, 불안, 신체화 등과 같은 내현적 문제와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한현아, 2008; Juffer, Stams & IJendoorn, 2004), 청소년기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적응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Underwood & Rosen, 2011). 이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나 또래수용성과 같은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안수영, 2009). 하지만 Perke와 Asher(1993)는 또래수용성이 낮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단짝 친구와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또래수용성만으로는 또래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김진경, 유안진, 2002; 양하련, 이은주, 2014). 그리하여 최근에는 또래관계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진경, 유안진, 2002; 안수영, 2009; Aboud & Mendelson, 1996),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또래관계의 양상인 또래관계 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아중심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상상적 청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상상적 청중이란 과장된 자의식으로 자신이 항상 타인의 관심 대상이라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 즉, 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공격 이미지가 또래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집중하게 된다(하정희, 2017). 그 과정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보다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Hewitt, Flett, Sherry, Habke, Parkin & Lam, 2003) 성향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 성격의 일부분으로,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한 것처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 특성이다(오선우, 2016).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과 관련되므로 대인관계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이동귀, 서해나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은 대인관계 경험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영, 2017; 홍윤정,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정원우, 2015). 즉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과 자신의 실수나 결함과 같은 불완전한 모습을 은폐하려는 행동이 불러온 과장된 행동과 방어적인 태도가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개인이 유능하게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Ellis, 1977). 즉, 자기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 전부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일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행복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 경쟁하여 자기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미, 하정희, 2015). 즉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조건적인 자기 수용을 하기에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격특성 중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의 관계,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거쳐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Mackinon & Sherry, 2012; 이은진, 2014, 이태영, 2015; 이지은, 2016; 최인영, 2017)을 고려할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지윤과 이동귀(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는 수행에 따른 성과에 자신을 평가하며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 민소윤(2016)은 청소년기는 완벽주의가 발달하는 시기로 타인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합해야한다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압력의 영향이 크게 증대되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하며, 완벽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개인의 중요한 내적 요인 중 하나인

자기수용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라형선, 2012; 안상원, 2014; 황종건, 2000).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이 타인에게도 확장되어 타인을 수용함으로써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Maccinnes, 2006).

자기수용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Maccinnes(2006)은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였다. 안상원(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만족 간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잘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경진, 2013; 이어진, 2015; 허토실, 2017),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소윤, 2014; 이찬희, 2014). 따라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있어 중요한 인간관계인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수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수용을 잘할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나아가 이런 경험은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정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은 모두 또래관계 질에 중요한 변인이 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중요

성이 높아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대인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확인을 통해 학교적응의 핵심요소인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의 심리적 부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을 밝혀내고 있다. 즉,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집단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박현주, 정대용 2010; 이미화, 류진혜 2002;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이에 더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유능성 욕구 충족의 중재요인에 의해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함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적응적인 측면이 확인된 바 있다(강병은, 2015; 김다정, 2014; 남유진, 2017).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유추해본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닌 중재요인에 의해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인 수행 결과로 만들어내며, 이러한 성공경험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대인관계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완벽주의

가 중재요인에 의해 적응적으로 기능함에 따라 또래관계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두 변인 사이에 작용하는 제3의 변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기수용’을 상정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대인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자기수용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최명선, 강지희, 2018).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과 불안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수용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사라형선 2012). 그 외 자기수용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지윤과 이동귀(2012)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 경제에 대한 자기불일치와 행복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이현미와 하정희(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더하여 정은영과 신희천(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이 수치심과 우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더라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타인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고 지각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하고 또래관계에서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

래관계 질의 관계는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해 낮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만약 자기수용 수준이 높다면 높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하는지, 그리하여 자기수용이 중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종합해 본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의미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수용,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수용이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기수용의 과정을 이해하고, 또래관계 질이 낮은 청소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를 자기수용이 매개하는가? 둘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를 자기수용이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설문지 전면에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료 3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61부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14명(43.7%), 여학생 147명(56.3%)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 66명(25.3%), 2학년 129명(45.6%), 3학년 76명(29.1%)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PPSPS)를 하정희(2011)가 한국 실정에 맞게 문항들을 추가,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PSPS-K)를 사용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8문항), 불완전함 은폐-행동적(5문항), 불완전함 은폐-언어적(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정희 연구에서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

또래관계 질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 홍영지, 현명호(2015)가 Furman와 Buhrmester(1985)의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 Parker와 Asher(1993)의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FQQ) 및 김진경과 유안진(2002) 척도를 참고하여 청소년에게 맞게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화한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3문항으로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 부정적 또래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또래관계에는 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이 부정적 또래관계에는 갈등과 대립, 일반적주도, 철회와 고립의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성만, 홍영지, 현명호(2015) 연구에서 또래관계 질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

자기수용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하고 2003년에 개정한 것을 김사라형선(2005)이 번안한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사라형선(2005) 연구에서 자기수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로 나타났.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2)의 Process를 이용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검증은 SPSS 18.0와 Hayes(2012)의 PROCESS를 이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하기 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조절변인인 자기수용을 평균중심화(centering)를 한 다음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모형 1에서는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조절변인인 자기수용,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설명력(R^2)이 유의하게 증가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인인 자기수용의 수준(+1SD, -1SD)에 따라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과의 회귀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래관계

질, 자기수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수용과 부적상관($r=-.52, p<.001$)을 또래관계 질과 부적상관($r=-.30, p<.001$)을 나타냈었다. 자기수용은 또래관계 질과 정적상관($r=.48, p<.001$)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변인인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3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종속변인인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197,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함께 투입된 매개변인인 자기수용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436, p<.001$). 즉, 매개효과 성립을 위한 1, 2, 3단계 회귀분석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수용을 모형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beta=-.197, p<.001$)보다 감소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51, p=.216$).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2034과 상한값 -.0993사이에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 자기제시는 자기수용을 통해서만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하기 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조절변수인 자기수용을 평균중심화를 한 다음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조절변수인 자기수용,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설명력(R^2)이 유의하게 증가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본다.

1단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부적영향($\beta=-.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기수용은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영향($\beta=.4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항(A*B)을 투입한 결과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부적영향($\beta=-.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 R^2 은 모형 1에서 9%, 모형 2에서 23% 그리고 모형 3에서 28%로 점차 증가하였고 그 증가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표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수용, 또래관계 질의 상관관계

	1	2	3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		
2. 자기수용	-.52***	1	
3. 또래관계 질	-.30***	.48***	1
M	4.25	4.32	4.13
SD	.91	.59	.59

*** $p<.001$

표 2.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1	자기수용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335	.034	-.517	-9.721***	.267
2	또래관계 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97	.038	-.304	-5.135***	.092
3		자기수용	.436	.064	.435	6.820***	.231

* $p<.05$, ** $p<.01$, *** $p<.001$

표 3.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B	SE	β	F	R ²	ΔR^2
1	(상수)	4.13	.04		26.37***	.09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0	.04	-.30***			
2	(상수)	4.13	.03		38.75***	.23	.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5	.04	-.08			
	자기수용	.44	.06	.44***			
3	(상수)	4.08	.03		33.53***	.28	.0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A)	-.03	.04	-.05			
	자기수용(B)	.49	.06	.49***			
	A*B	-.19	.04	-.23 ***			

*** $p < .001$

유의했다. R²의 변화량(ΔR^2)은 1단계에서 2단계에로의 변화량은 14%, 2단계에서 3단계 즉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5%만큼 R²의 변화량(ΔR^2)이 증가되었고, 그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기수용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주장에 따라, 조절변인의 특정값(평균값 및 평균값 ± 1 SD)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PROCESS(Hayes, 2012)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은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t=1.55, p=.12$), 평균수준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82, p=.41$). 하지만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16, p<.01$).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짐을 의미하며,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검증

	Effect	S.E	t	LLCI	ULCI	
자기수용	-1SD	.08	.05	1.55	-.02	.18
	평균	-.03	.04	-.82	-.11	.05
	+1SD	-.14	.05	-3.16**	-.23	-.05

** $p < .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hat{Y}=4.08-0.3x+.49m-.19xm$$

(Y는 또래관계 질, x와 m은 평균중심화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수용)

추정된 회귀식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고(+1 SD: .91), 저(-1 SD: -.91)와 자기수용의 고(+1 SD: .59), 저(-1 SD: -.59) 값을 대입하여 또래관계 질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낮을 때,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또래관계 질의 평균은 3.95으로 나타났고,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또래관계 질 평균은 4.74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 때,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또래관계 질의 평균은 3.61로 나타났고,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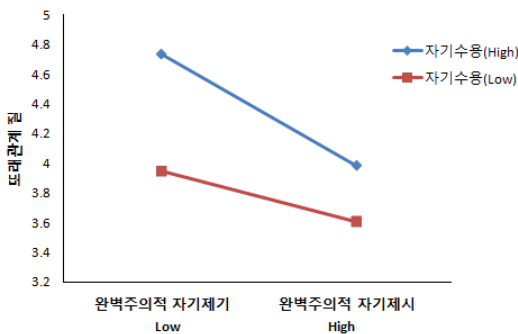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관계 질이 평균은 3.9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낮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따라 또래관계 질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의한 또래관계 질을 증가시키는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래관계 질,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또래관계 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대인관계 질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정원우, 2015; 최인영 2016; 홍윤정,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자기수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는 자기수용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보다 완벽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은 은폐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며 (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사라형선, 2005; 김지윤, 2013; 민소윤, 2016; 이지은, 2017).

자기수용과 또래관계 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주관적 만족이 높다는 것은 자기수용이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Maccinees, 2006)와 상통하며,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만족 간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사라형선, 2012; 안상원, 2014)와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민소윤, 2014; 이찬희 2014)를 뒷받침한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 대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낮으며, 낮은 자기수용은 또래

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Flett et al., 200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자기명확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김지윤, 이동귀 2013).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민소윤, 2014)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에 의해 겉으로 보여지는 대인관계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실수나 결함과 같은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떠나갈 것 같다는 불안이 높고, 이로 인해 결국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낮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낮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낮은 또래관계 질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자기수용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 대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낮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낮으면서 자기수용을 잘하는 청소년은 높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하지만 자기수용을 못하는 청소년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또한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한 낮은 또래관계 질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서 오는 낮은 또래관계 질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관계 질을 향상을 위한 자기수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바이다.

Rogers(1950)는 자기이해는 자기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고, 한중철 등(1994)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자기이해는 자기수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전옥과 장성숙(2012)에 따르면 자기이해는 자기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기이해가 정확할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며, 자신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수용은 부분적이거나 편협해질 수 있고 나아가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지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민감성과 자신에 대한 각성이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또래관계 질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공적인 이미지에 집중하고 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대부분 우울, 사회불안, 외로움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다정, 2014; 김빛나, 2014; 이새싹, 2016; 하정희,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을 밝힌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만족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의 양가성(홍윤정, 2007)과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표현 억제(정원우, 2015)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매개 및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수용이라는 조절요인에 의해 대인관계 장면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또래관계 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수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에서 자기수용이 매개 및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자기수용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기수용을 잘하는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또래관계 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공해준다. 청소년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부정하거나 개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수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수용이 높아지면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되고, 개인 내적 변화와 더불어 타인 또한 수용하게 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수용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가지는 특성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을 실제 성공 경험으로 만들어 내고, 이러한 성공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 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짐에 따라 또래관계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또래관계 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수용적 접근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또래관계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지역의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지역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 참여한 대상자들의 방어적인 태도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자신의 실수나 결함과 같은 불완전한 모습은 은폐하려는 특성을 가지므로 설문에서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자기수용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개입 전략 등 실제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예컨대,

마음챙김이나 수용전념치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학교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병은 (20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교육연구*, 38, 77-95.
- 김다정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36(1), 56-63.
- 김빛나 (20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3(3), 119-130.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61-481.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2), 111-131.
- 김지윤, 이동귀 (2012).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연구*, 13(3), 1443-1460.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남유진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선주 (2018).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에 따른 집단 분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격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차이.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소윤 (2014).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주, 정대용 (2010).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 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975-991.
- 배민영 (2015). 친구관계 질이 사회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4(3), 177-197.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444.
- 안상원 (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만족도와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163-176.
- 안은미 (2018).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외보호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0(2), 127-149.
- 양하련, 이은주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상취 목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 친사회성과

- 공격성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2(1), 235-260.
- 오선우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및 관계육구 충족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1-16.
- 이기은 (2008). 대학생의 성인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귀, 서해나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 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학회*, 9(3), 293-316.
- 이새썩 (2016).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경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7(2), 74-90.
- 이어진 (2015).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의사와 고통능력의 매개효과 및 성차분석. *상담학연구*, 16(4), 209-224.
- 이은진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 비난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희 (2014).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 하정희 (2015).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5875-5887.
- 정단비 (2012). 아동의 자기수용과 타인공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성공 및 실패 사건 경험에 대한 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709-719.
- 정원우 (2015).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 질 관계에서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 신희천 (201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1), 183-194.
-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43-53.
- 최인영 (201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2), 133-153.
-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 구, 12(4), 1069-1088.
- 하정희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방어유형과 우울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21-941.
- 한중철, 김은정, 김영란, 배주미 (1994). 대인관계를 통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연세교육과학*, 43, 171-202.
- 한현아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 87-101.
- 허토실 (2017).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2), 45-63.
- 홍윤정 (2017).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3), 211-227.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종건 (2000). 소집단 자기표현활동이 초등학생의 자아수용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15-28.
- Chamberlain, J. M., & Haage,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63-176.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an being.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 1, 99-112.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et al.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
- Juffer, F, Stams, G, J. M., & van IJendoorn, M. H. (2004). Adopt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ego resiliency, ego control, and sociometric statu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697-706.
- Maccinnes, D. L. (2006).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4-489.
- Mackinnon. S. P., & Sherry. S. B., (2012).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concerns and subjective well-being: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1), 22-28.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
- Rogers, C. R. (1950). The significance of the self-regard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In M. L. Reymert (Ed.), *Feelings and emotions*. New York: McGeow-Hill.
- Shahar, T. B. (2010). *완벽의 추구*. (노혜숙 역). 서울: 위즈덤 하우스. (2009 원판 출간).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omov, P. G.. (2010). *Present perfect: A mindfulness approach to letting go perfectionism and the need for control*. New Harbinger.
- Thompson, B. L., & Waltz, J. A. (2008). Mindfulness, self-esteem,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6(2), 119-126.
- 원 고 접 수 일 : 2019. 02.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6. 03.
최종게재결정일 : 2019. 08. 22.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er relations quality in Adolescents

Choi, Mi-Eun

Geochang Office of Education Wee-center

Nam, Suk Kyung

Kookm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in adolescents. Two hundred and sixty-on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acceptance had a ful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hat is, peer relationship quality was only indirectly affected b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rough self-acceptance. Second, self-acceptance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eer relationship quality in the group with low self-acceptance, but it did in the group with high self-accepta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counseling and educational approaches to improve adolescents self-acceptance by verifying the effect of self-acceptance i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eer relationship quality, self-acceptance